

《이슬람 정육점》에 나타난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지향적 응시

이미림*

— || 차례 || —

- I. 다문화사회와 최근의 문학적 경향
- II. 흉터와 외상, 이주로 점철된 소수자들
- III. 카니발·타자의 공간인 다문화공간
- IV. 탈영토화된 언어로서의 말더듬/피진어/침묵/비속어/반복어
- V. 어린아이의 시선과 유동하는 시대의 문학적 소명
- VI. 결론

【국문초록】

《이슬람 정육점》은 다문화적 사유를 바탕으로 흉터와 외상, 이주로 점철된 소수자가 모여사는 다문화공동체를 구현하고 있다. 고아원, 보호소, 성당을 전전하며 기원을 알 수 없는 흉터를 간직한 전쟁고아인 ‘나’는 상처받은 영혼이다. 차별과 고통 속에서 성장한 고아소년은 터키인 하산에게 입양되면서 후락한 동네로 오게 된다. 이 마을에는 이주자, 폭력피해여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자, 전쟁희생자, 가난한 자, 실연한 자, 소외된 자, 도망자 등이 모여 산다. 주변부 삶을 사는 마을사람들은 카니발 공간이자 타자의 공간인 다문화공간에서 여신, 성자, 상처치유자, 전쟁영웅, 초능력자로 재탄생되며, 소년도 상처를 간직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의붓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세상과 화해한다. 이 마을에서는 혈연이 아닌 흉터를 공유한 사람끼리 가족을 이루는 대안가족으로서의 다문화가족이 형성된다. 또한 자국민에게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여 가족을 만들어주고 한국을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외국인 하산이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고발한다. 하산의 정육점, 안나의 식당인 타자의 공간에서는 탈영토화된 언어인 말더듬, 피진어, 침묵, 비속어, 반복어, 동물의 언어로 소통하며 병을 치유하고 음식을 나눔으로써 다문화적 자세를 지향하고 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타자적 입장에서 작품을 써야하며, 정치적이고 치유하는 역할이 우리 시대의 문학적 소명임을 말하고 있다. 작가의 꿈을 소망하는 전쟁고아와 말더듬이 소설가 김유정과 이름이 같은 유정의 입을 통해 문학관을 피력하는 작가는 아이-되기, 동물-되기와 같은 타자-되기를 실현한다. 이방인, 외국인처럼 어린이의 시선은 작가가 주창하는 삶의 태도이자 창작적 관점이다. 1990년대 이후 동구권의 붕괴와 신자유주의 광풍과 세계화로 인해 길을 잃은 작가들에게 이 소설은 문학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문화시대에 구획과 경계를 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유동하며 생성하는 차이생성의 문학을 주창한다. 실험적이고 정치적인 《이슬람 정육점》은 우리 사회의 편향되고 획일적이며 반인권적인 자세를 비판하는 녹록치 않은 주제의식을 담고 있으면서도 유머, 동화적 분위기, 환상성, 아이러니, 재치있는 언어 구사로 재미있게 읽힌다는 점에서 문제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다문화적 사유, 타자지향적 응시, 카니발 공간, 타자-되기, 탈영토화된 언어, 문학적 소명, 어린이어

I. 다문화사회와 최근의 문학적 경향

최근 연구경향 중의 하나가 탈국경 상상력에 바탕을 둔 다문화·디아스포라문학에 대한 관심이다. 우리 사회에도 전지구화와 글로벌경제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이주자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전근대적 순혈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그리고 인종차별주의는 외국인과의 아름다운 공생을 방해하며, 인권, 세계시민의식, 문화상대주의, 톨레랑스, 윤리문제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본고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슬람 정육점》(문학과지성사, 2010)을 통해 손홍규¹⁾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살펴보고 그

의 문학이 유동성의 시대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 소설은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정착한 터키인이 전쟁고아를 입양하면서 차이와 다름을 수용하고, 역사와 전통, 관습에서 벗어나는 기존의 틀을 해체하고 생성을 추구하고 있다. 작가는 여러 단편에서도 외국인노동자, 탈북자, 조선족이주자의 비참하고 배타적인 한국생활을 그리면서,²⁾ 우리 사회의 편향되고 획일적이며 반인권적 태도를 풍자적이고 유니크하게 비판하였고 비인간/동물과 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주인공을 설정³⁾하고 있다. 소설제목에서처럼 ‘이슬람’과 ‘정육점’의 결합은 다문화사회의 자국민과 이주자의 어우러질 수 없는 현실을 나타내는 동시에 차이를 통한 생성의 의미를 지닌다. 그의 문학은 강요당한 복종을 거부하고 상처받은 자들의 연대를 통한 해방의 기획⁴⁾이라든가, 타인의

1) 작가는 1975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2001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등단했다. 소설집으로는 《사람의 신화》(문학동네, 2005), 《귀신의 시대》(랜덤하우스중앙, 2006), 《봉섭이 가라사대》(창비, 2008), 《이슬람 정육점》(문학과지성사, 2010)이 있으며, 《툰은 툰과 잤다》(문학과지성사, 2012)로 제6회 백신애문학상을 수상하였다.

2) 손홍규의 단편 <이무기 사냥꾼>에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알리와 탈북자 장웅을 통해 ‘죽은 시늉’, ‘꼼짝않기’와 같이 자유와 활동의 권리조차 제한된 노바디, 산주검, 비인간의 형상을 묘사함으로써 공동체에서 축출되거나 추방당한 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하였다. - 이미림, 『2000년대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 『우리문학연구』 제35집, 우리문학회, 2012.2, p.325.

3) <거미>(비평과전망 제9호, 2004, 하반기)의 소녀는 스스로를 한 마리의 거미라고 믿고 있으며, <사람의 신화>(현대문학, 2003.12월호)에서는 친구를 인간이 아닌 뱀으로, <바람 속에 눕다>(작가세계, 2004.봄호)에서는 그녀-노루로, <이무기 사냥꾼>(문학동네, 2005.여름호)에서는 사면발이 흉내를 내는 인간이 등장하고 있어, 인간과 비인간의 영역 사이를 배회하는 인간군상을 다룸으로써 인간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4) 정기문, 『손홍규론: 기억하기, 사랑의 윤리학』, 『동남어문논집』 제32집, 동남어문학회, 2011.11, p.74.

고통까지도 상상할 수 있어야 하는 인간의 조건과 유머를 구사,⁵⁾ 삶과 죽음을 구별하지 않으며 자신의 기원을 재창조하려는 인물을 그린다⁶⁾ 평가를 받는다. 또한 설화적 모티프와 미술적 세계를 지닌 미술적 리얼리스트, 마르크스주의자로 평가⁷⁾되기도 한다. 그의 소설은 인간의 문제를 다루며 여기서의 인간문제란 비인간으로서의 인간이거나 경계를 뛰어넘는 인간을 의미한다. 기존연구를 종합해 볼 때 그의 문학적 코드는 인간, 결핍, 기억(기원), 윤리, 연대, 나눔, 신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슬람 정육점》엔 기존언어와는 다른 언어적 표현을 구사하며, 한국 사회에서 표상하는 근대의 주체인 남성, 20대, 한국인, 중산층의 조건을 갖춘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의 문학은 유동하는 타자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구획과 경계를 정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생성하고자 한다. 좋은 문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중요⁸⁾하다. 즉 문학작품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하고 실험하는 것이며 글을 쓴다는 것은 탈주선을 추적하는⁹⁾ 것이다. 본고는 다문화적·디아스포라적 상황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에 《이슬람 정육점》에 나타난 다문화적·타자지향적 사유와 응시를 통해 문학의 나아갈 방향성과 최근의 문학적 경향을 진단하고자 한다.

5) 김미정, 「비루함과 존엄 사이, 도약하는 반인간·비인간들」, 『봉섭이 가라사대』, 창비, 2008, p.318.

6) 허윤진, 『HE, STORYTELLER: 상엿소리를 기록하는 사내』, 랜덤하우스중앙, 2006, p.375, p.384.

7) 김형중, 「출노령기」, 『툼은 툼과 잤다』, 문학과지성사, 2012, p.301.

8) 질 들뢰즈,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p.344.

9) 로널드 보그, 김승숙 역, 『들뢰즈와 문학』, 동문선, 2003, p.287.

II. 흉터와 외상, 이주로 점철된 소수자들

유동성의 시대에 소설 속의 주인공은 국경을 넘으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변화시키고 반복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과 인물로 탄생하는 생성의 존재가 된다. 끊임없이 횡단(trans-)하는 경계인 혹은 이방인, 유목민은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 영원히 활공하는자(미끄러져 날아가는 자)¹⁰⁾이다. 작중 인물들은 과거가 불분명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박탈당해온 것의 기원이나 충족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이주나 상실된 사랑이나 외상(trauma)을 필요로 하며, 어떤 상상된 법에 대한, 혹은 타자에 대한 복종의 외상이 없다면 동일성을 갖지 않을 것¹¹⁾이다.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마을, 시장, 식당, 거리, 소풍장소는 민중의 장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 고아, 폭력피해여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자, 말더듬이, 빈곤한 사람 등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이다.

《이슬람 정육점》의 ‘나’는 전쟁고아 출신으로 고아원, 보호소, 성당을 전전하며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컸기에 누굴 믿거나 좋아해 본 적이 없는 10대 소년이다. 머리가 나빠 중학교에 안 보냈다는 원장의 모욕적인 발언과 어디로 입양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 불량스럽고 냉소적으로 자란 소년은 하산에게 입양되면서 가족을 갖게 되며, 총상의 흔적처럼 여겨지는 몸에 새겨진 흉터가 타인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난도질하는 유일한 무슬림”인 하산 아저씨는 미로처럼 골목이 갈라지고 이어진 낡고 후락한 산동네의 이층짜리 다세대주택 일층에 세들어 살고 있다. 모스크가 있는 이 마을에서 소년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도망 온 안나 아주머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인 야모스 아저씨, 전쟁의 상흔을 지닌

10) 마이클 하트, 김상운 외역, 『들뢰즈 사상의 진화』, 갈무리, 2004, pp.349-350.

11) 클레어 콜브룩, 한정현 역, 『들뢰즈 이해하기』, 그린비, 2007, p.93.

대머리 그리고 말더듬이 김유정, 맹랑한 녀석을 관찰하며 자신의 뿌리, 고향, 부모, 흉터의 기원을 찾아간다. “얼굴에는 버짐이 피고 머리에는 기계충 자국이 남은” 소년은 팔뚝을 절반쯤 감싼 흉터가 남을 정도로 학대받고 버려진 아이이다. 세상의 문을 닫고 살던 소년은 이 동네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왼쪽턱에 새끼손가락 굵기의 흉터”가 있는 야모스 아저씨, “상처투성이 손”에 “몽개지고 짓이겨져 원래의 형태를 잃은 귀”를 가진 하산 아저씨, 전쟁으로 인한 장애를 앓는 대머리에게서 흉터를 발견하며 마을사람들 모두가 내면의 상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아픔을 치유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구역질이 났다. 교훈은 대개 ‘바른 시민 육성’이었고 급훈은 ‘성실, 근면, 협동’이었다. 어느 학교든 화단에는 근엄한 위인들이 앉아 계셨고 일 년 가운데 단 하루만 눈길을 받는 이승복도 빠지지 않았다. 교장의 취향에 따라 푸성귀를 기르는 텃밭이 있기도 했고 비둘기나 토끼 사육장이 있기도 했다. 버드나무, 무궁화나무, 사철나무, 향나무가 똑같은 모양으로 다듬어져 생기 없이 자랐고 통행로가 운동장을 따라 만들어져 있었다. 학생들은 누구나 정해진 길을 따라 걸어야 했고 상보만한 천 쪼가리를 쳐다보며 맹세를 강요당했다. 학교란 한마디로 착실한 바보를 만들어내는 곳이었다. ... (중략) ... 나는 학교가 외로운 곳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역겹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동정과 비난이 교묘하게 섞인 그 더러운 시선과 속삭임이 지겹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¹²⁾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획일적인 학교생활과 규율과 복종을 요구하는 고아원 체험을 통해 상처받은 소년은 전쟁 참여 후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 자신을 입양해준 하산과 디아스포라적 동질감을 형성하며 성장하고 변화한다. 고아와 이주자는 사회의 아웃사이드이자 태어나고 성장한 곳에

12) 손홍규, 《이슬람 정육점》, 문학과지성사, 2010, pp.22-23.

서 벗어났다. 점에서 타자성을 공유하고 동병상련을 느끼게 되며 연대의식이 형성된다. 작가는 판옵티콘으로 상징되는 훈육사회의 혈벗은 반복¹³⁾을 비판하며, 규격화되고 제도화된 것들에 대해 저항하고 탈주하고자 한다. 가족을 만들어주고 자신을 학교에 보내려고 애쓰는 하산 아저씨를 아버지로 받아들인 소년은 그를 연쇄살인마로 바라보는 세상의 차별적 시선과 편견이 부당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이고도 반인권적인 시각이 아닌, 다문화적·타자지향적 자세를 요청한다.

사람들은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했다. 하산 아저씨가 겁을 준 적도 없고 불쌍스럽게 대한 적도 없고 품에 무기를 숨긴 것도 아닌 데 말이다. 그들이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 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다르다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콧수염을 길러서. 눈이 더 깊고 그윽해서.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일뿐이라고 말한 자는 행복한 삶을 살았음이 분명하다. 차이가 유사성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걸 안다 해도 자연스레 생겨나는 불쾌감과 공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 한번 오줌을 누기 시작하면 방광이 텅 빌 때까지 멈추기 어렵듯이 타인에 대한 혐오감은 그러한 감정이 생겨나는 원인이 제거되거나 그 혐오감을 정당화할 적당한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그 말을 한 사람은 행복했던 자이다.¹⁴⁾

온전치 못한 삶으로서의 기괴하고 낮은 이주경험은 주저함, 불확실성,

13) 혈벗은 반복은 들뢰즈의 용어로, 표면적·물질적·수평적·정태적인 특징을 지니며 허비투스(습관)을 바탕으로 하는 같은의 반복이자 개념이나 재현의 동일성에 의해 설명되는 반복이며, 옷입은 반복은 심층적·수직적·역동적인 특징을 지니며 트네모시네(기억)를 바탕으로 하는 자신 안에 차이를 포괄하며 스스로 이념의 타자성 안에, 어떤 간접적인 현시의 다질성 안에 포괄되는 반복으로, 전자는 부정적으로 후자는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질 들뢰즈, 김상환 역, 앞의 책, p.601.

14) 손흥규, 앞의 소설, p.51.

양가성¹⁵⁾에서 비롯되며, 이는 하산을 향한 시선에서도 드러난다. 다문화가정 2세와 전쟁고아라는 이중의 타자적 정체성을 지녔으며 학대와 유기 증거인 흉터와 상처가 온몸에 있는 키 작고 못생긴 소년은 고향, 가족, 이웃, 친구조차 없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하산과 상처와 시선을 공유하며 가까워진다. 트네모시네(순수과거)가 사라진 고아소년은 마을사람들의 응시를 통해 과거를 묻고 대답을 훔쳐내고자 한다.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고유한 이미지를 응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래를 향하여 스스로 뒤돌아설 때만 그 이미지를 규정하고 향유¹⁶⁾할 수 있으므로 소년은 이곳에서 응시와 생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간다.

어차피 나는 고향이 없다. 그리워해야 할 원형의 풍경도 회귀를 꿈꾸게 하는 낮은 사물에 대한 기억도 없었다. 그러므로 어딜 가나 내겐 고향이고 모국이다. 누굴 만나든 그가 바로 내 오랜 벗이고 가족이다. 그건 곧 어떤 것도 나의 고향이 아니며 그 누구도 나의 벗이나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지만.¹⁷⁾

냉소적인 고아의식과 유기에 대한 공포로 체념이 빠르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조숙한 소년은 하산 아저씨의 사랑을 받으며 마을사람들의 상처를 공유한다. 한국전 참전 이후 한국에 정착하여 고아를 입양한 하산처럼 이 소설에는 야모스, 이맘 등의 외국인이 등장한다. 이슬람교도이자 터키인인 하산은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다루고 판매한다. 잠언이나 선답 같은 말을 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는 하산은 다른 외모 때문에 차별받지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전쟁 중 살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인

15) 데이비드 허다트, 조만성 역,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엘피, 2011, p.148.

16) 위의 책, p.180.

17) 손홍규, 앞의 소설, p.54.

간의 살점을 먹은 상처를 갖고 있다. 그리스 내전 때 친척을 오인 사살한 죄의식으로 도망치듯 탈출해 귀국하지 못하고 한국에 머문 야모스도 종합 병원 세탁일, 장의사, 도로공사 터널인부 등 3D업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¹⁸⁾이다. 주눅들은 표정으로 ‘투명인간’, ‘유령’, ‘산귀신’, ‘그림자’ 취급을 받는 성직자 이맘처럼 외국인인 한국사회에서 배제된 예외적 인물이자 국민/비국민의 경계에 머문다. 이들은 전쟁고아처럼 흉터와 내면의 상처를 갖고 있으며 고향과 과거를 상실한 이주자이자 유목민이다. 이 마을로 이사 온 대머리는 고통스러운 3년간의 전쟁 기억을 잃어버린 채 새벽마다 군가를 목청이 찢어져라 부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자이다. 참호에 매몰되었다가 구조된 대머리는 기억을 찾기 위해 여전히 전쟁 중이며 강박성을 띤 반복¹⁹⁾을 하고 있다. 고아, 하산, 야모스, 대머리는 전쟁과 연관된 외상(外傷)²⁰⁾을 안팎으로 지닌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이들 외에도 이 마을에는 “굽은 허리에 손을 떨고 깊은 주름이 있는 얼 굴로” 같은 말만 반복하는 술주정뱅이인 열쇠장이 영감, 가난한 연탄장수인 유정의 부모, “걸어다니는 비속어사전”인 쌀집 김씨, 말더듬이이자 동물과 소통하는 유정, 상처 입은 짐승처럼 세상을 물끄러미 보거나 하루 종일

18) 사회적 약자인 이주자는 최근 다문화소설에 등장하는 21세기의 새로운 타자로 자유의 권리, 활동의 권리조차 제한되며, 공동체를 확인할 때마다 표적이 되는 희생양 메커니즘, 배제 메커니즘의 대상이 되어 최소한의 인권도 허락받지 못한 채 무국적자, 경계인, 이방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 이미림, 앞의 논문, pp.340-341.

19) 프로이트는 어머니의 사라짐에 대한 상실과 즐거운 귀환을 의미한 아이의 포트-다(fort-da)의 반복과 전쟁의 악몽이 반복되는 외상성 신경증 환자를 통해 자신의 쾌락 원칙을 수정하였고 이를 반복강박(repetition compulsion)이라고 하였다. - 프로이트, 박찬부 역,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pp.9-89 참조.

20) 외상이란 주체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자극이나 충격에 의해 입게 되는 정신적 상처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른바 전쟁 외상성 환자들이 급증했는데 이들은 일상생활이나 꿈속에서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겪어야 했던 처절한 비극의 현장을 거의 자동적으로 되풀이 하고 있었다. - 위의 책, pp.265-266.

투덜대며 실연한 ‘맹랑한 녀석’ 등 비정상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인물들이 살고 있다. 충남식당을 운영하는 안나는 자신에게도 흉터가 있다며 고아소년을 씻기고 위로한다. 그녀는 고아가 느끼는 소외감과 아픔을 공유하고자 자신의 상처를 얘기하며 아이를 배려하는 타자적 자세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음식을 제공하고 요리를 만드는 대지의 여신이자 구원의 여성이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아프고 배고픈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윤리적 주체이다. 즉 험벗고 고통받는 타인의 호소와 요청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손님으로 환대하며 책임을 지는 타자성을 수용한다. 손흥규의 작중인물들은 자신을 보통의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족속으로 여기는 자학적 감정을 갖는²¹⁾ 이방인이자 타자이다. 전쟁, 과거, 폭력, 유기, 가난의 상처로부터 도망치듯 이곳에서 모여 사는 마을사람들은 주변부 인생이지만 자국민에게 버려진 고아를 입양하고 한국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고 3D업종 노동에 종사하며 상처받은 자를 돌보고 배려한다. 기억도 역사도 잃은 고아소년은 이주자인 하산과 안나, 대머리, 마을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구성을 해나간다. 여기서의 기억상실은 고착화되고 상수화된 것에 묶여있지 않고 창조와 생성의 가능성을 갖기 위한 모티프로 설정되고 있다. 자기 안의 타자를 응시하며 흉터와 상처를 공유하고 기억을 잃은 이들은 공동체의식을 지닌 다문화가족을 구성하고 있다.

Ⅲ. 카니발 · 타자의 공간인 다문화공간

작중인물들은 이방인, 유령, 그림자, 전쟁영웅, 상처치유자 및 여신의 모

21) 김형중, 앞의 논문, p.304.

습으로 살아간다. 소설의 화자인 10대 소년의 눈에 비친 세상은 부조리하며 악의와 차별로 가득하다. 이 마을은 사회적 통념과 세속적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민중공간으로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고 해체한다.

정육점을 찾는 다른 무슬림은 없었다. 손님들은 대부분 이 동네 토박이거나 무슬림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다. 일수 돈을 쓰라고 권하는 사람, 육절기나 업소용 냉동고를 파는 영업사원이 이따금 들르긴 했다. 정육점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토박이,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정육점 안에서가 아니라면 하산 아저씨를 알은 체하지 않았다. 정육점 문턱은 단순한 문턱이 아니라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나누는 경계인 셈이다.²²⁾

다문화사회의 도래는 허울뿐 문턱으로 경계 그어져 이원화되고 있다. 하산은 한국인으로부터는 외국인이자 이방인으로, 무슬림으로부터는 돼지고기를 썰고 파는 정육점 주인으로 외면당하는 인물이지만, 상처투성이인 고아를 데려다 학교에 입학시키고 세상과 화해시키려는 선량한 사람이다. 아이들에게 자애롭고 푸근한 하산이 소년에게겐 성자로 비춰진다.

이방인 하산과 야모스를 유일하게 남들과 똑같이 대하는 안나는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세상의 상처받은 이들-전쟁고아, 이주자, 범죄자, 패배자, 전쟁피해자 등-을 포용하고 보듬는다. 상처 입은 한 청년이 안간힘을 다해 식당까지 와서 안나의 품에 안긴 후 병원에서 삼십 분 만에 죽은 기적과 같은 사건은 목소리, 숨결, 시선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그녀의 모성적인 기운 때문이다. 아픈 야모스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고, 충격 받은 맹랑한 녀석의 귀를 문질러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안정을 되찾게 하며 밥을 먹이는 그녀는 다문화공간의 상처치유능력자이다. 그러나 대지의

22) 손흥규, 앞의 소설, p.76.

여신 가이아이자 아프로디테로 칭송받는 안나는 사실 남편의 폭행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도망친 ‘홍터의 여왕’으로 충북식당, 강원식당, 제주식당, 호남식당을 운영하다 망한 전력과 <안네의 일기>를 <안내양의 일기>로 이해하는 무식한 여성일 뿐이다. 이곳에서 그녀는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여신으로 재탄생한다.

소년의 시선으로 볼 때 그녀가 운영하는 충남식당은 자신은 말 안 듣는 명칭한 자식이고 하산 아저씨는 게으름뱅이 시아버지이며 야모스 아저씨는 빈털터리 남편이고 안나 아주머니는 세 사내 위에 군림하는 여왕이자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가장 역할을 하는 소꿉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또한 이 공간은 상처와 홍터투성이인 타자들의 공간이자 축제의 장²³⁾으로 묘사된다. “벽에 면한 부분은 조리대였고 창문이 달린 길에 면한 부분은 술을 엮은 아궁이였다. 커다란 무쇠솥에서 고기를 삶느라 늘 김이 모락모락 피었다”에서처럼 주방은 세계이고 이 아궁이는 태양, 즉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의미²⁴⁾를 지닌다. 자궁, 아궁이, 부엌 공간은 유년기의 안락함, 포용성, 안정을 연상케 하는 은신처로서의 여성공간이다. 안나의 식당은 타자를 포용하는 이타적 공간으로 치유하고 부활시키며 생성하는 피난처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을 구원의 대상이자 식사를 제공하고 포용하는 모델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그녀는 희생과 사랑의 전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마을남자들과 고아소년에게 대지의 여성으로 칭송받는 안나는 신화 속

23) 이는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마를렌 고리스 감독)의 장면들을 연상케 한다. 이 영화는 안토니아를 중심으로 이 마을에서 배척당한 마을사람들-동성애자, 바보, 성폭행피해자, 파계한 성적자, 여성, 이교도, 염세주의자, 외국인 등등-이 모여 그녀의 집 뜰에서 먹고 노래하고 춤추며 살아간다. 이들은 타자지향적이고 절대적 환대의 윤리를 지닌 사람들로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 보듬어 안는 타자의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

24) 미하일 바흐친, 이덕형 외 역, 『프랑스어 리블레의 작품과 증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1, p.287.

여인으로 대지모 같은 포용성, 자기희생을 부여하고 강요당하는 자연이자 대지, 생산의 이미지로 남는다. 여성의 헌신과 돌봄이라는 모성이데올로기만이 남성과 사회를 치유할 수 있다는 가부장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모성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전근대적 향수라는 해결은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없기²⁵⁾ 때문이다. 세상에 대해 뼈뺌한 고아를 씻겨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는 안나와 함께 보내며 소년은 하산을 아버지로 받아들인다.

“제 말 들으셨어요? 사랑해요. ……사랑한다구요!”

나는 내 몸속으로 의붓아버지의 피가 흘러들어온 걸 느꼈다. 뜨거웠다. 인간의 모든 기억들이 이처럼 단순하고 정직하게 이어진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훗날 내 자식들에게 나의 피가 아닌 의붓아버지의 피를 물려주리라. 병실 구석에 섰던 이맘이 다가와 나를 껴안았다. 그날 나는 이 세계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었다.²⁶⁾

소년은 남편의 폭행으로 가출하여 자신의 아이와 만날 수 없는 안나 아주머니의 아들이 되어줄 수도 있고, 의붓 아버지의 피가 흐른다고 느낄 정도로 이웃들과 가족애가 형성되는 대안가족으로서의 다문화공동체 의식을 갖는다. 가족은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흉터가 있는 하산과 안나와 같은 이웃과 맺어지는 것이다. 이주자, 도망자, 고아, 여성은 상처를 공유한 소수자이다. 학연, 지역, 핏줄과 같은 잣대로 경계 굿던 근대적 사유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생성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이 고아의 성장서사와 이주자의 이산체험을 통해 그려진다.

아이의 입학과 가게세로 고민하던 하산은 정육점을 그만두고, 남편의 부

25) 김형중, 앞의 논문, p.303.

26) 손홍규, 앞의 소설, p.236.

고소식을 접한 안니는 마을사람들과 소풍을 결심한다. 이 소설의 소풍장면은 전민중적인 속성을 지닌다. 상처가 있는 동네사람들이 돼지를 잡는 업기적이고 무질서하며 황당스러운 난장판은 관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과 갱생이자 세계 전체의 독특한 상황²⁷⁾이다. 푸줏간인 정육점과 식당은 부분으로 절단된 육체의 민중축제적인 카니발적 이미지를 지닌다. 소풍 중의 육설과 구타는 죽이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주는 가축도살의 축제의 일부이다. 카니발은 감사나 진지한 어조, 명령, 허락 등에 얽매이지 않으며 유쾌함과 바보짓의 시작을 알리는 단순한 신호로 열리며,²⁸⁾ 민중이 스스로 벌이는 유일한 축제로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기고 조금도 슬퍼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죽음이란 오직 새 생명의 탄생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생성과 시간의 유쾌한 이미지를 알기 때문²⁹⁾이다. 고무합지를 태운 낫은 트럭엔 야모스, 안나, 하산, 대머리, 맹랑한 녀석, 노란 줄무늬 고양이, 유정, 이맘, 전도사가 타고 버스정류장에선 고수머리 청년과 쌀집 둘째 딸이 동승한다. 풍경이 사람을 관찰하고 인간이 어린이가 되며 아이는 동물이 되는 소풍의 목적지인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을사람들은 돼지 잡는 일에 열중한다. 쫓고 쫓기는 인간과 동물의 이수라장 같은 소풍 풍경은 업기적이고 그로테스크하며 죽음으로서 사는 연회의 양면성을 지닌다.

소풍을 다녀온 후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하던 하산은 충남식당에서 쓰러지고 ‘나’는 몸속으로 의붓아버지의 피가 흘러들어온 걸 느끼며 그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인다. 이 세계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은 소년은 죽음과 생성의 성장의례를 통과한다. 이 소설에서는 전도된 가치를 양산하고 차이

27) 미하일 바흐친, 앞의 책, pp.28-29.

28) 위의 책, p.384.

29) 위의 책, p.388.

를 통한 생성이 드러나며,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소외되고 결핍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공간은 유희와 축제, 웃음, 엉뚱함을 통해 일상세계의 법, 정치, 교육, 철학, 언어, 과학과 같은 여러 제도나 현상들을 기이한 형태로 변형시켜 표현하며 난센스로 가득 찬 환상 세계의 사건들을 미끄러지듯 배열³⁰⁾해 놓고 있는 것이다. 하산의 정육점, 안나의 식당 그리고 결핍되고 소외되며 가난하고 불안한 존재들이 모여 사는 타자의 공간이자 다문화공간인 이 마을은 타자지향적 응시로 가득 차있다.

IV. 탈영토화된 언어로서의

말더듬/피진어/침묵/비속어/반복어

욕설, 말더듬, 침묵, 피진어, 반복어 등의 비표상적이고 미분화된 마을사람의 소통방식은 탈영토화된 언어이자 타자의 언어로 고정된 권력관계의 기능을 붕괴시킨다. 이주자는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부재로 이산생활의 불편함을 겪으며 타자로 낙인찍힌다. 경계언어로서의 피진어³¹⁾를 구사하는 외국인의 한국어는 피진과 같은 경계언어이다. 한 사회에 표준언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경계에서는 소수언어가 발생하며, 피진어는 표준언어

30) 최영진, 『들뢰즈의 생성의 개념으로 읽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환상성, 패러독스, 그리고 동물 이미지의 잠재성』, 『인문언어』제12집, 국제언어인문학회, 2010, p.268.

31) 피진 Pidgins의 현상은 국제교류가 이루어져 국경을 넘어선 언어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형성된 경계언어로 중국인이 'Business'를 '피진'이라고 부른데서 유래한 말로 피진어 자체가 교역과 접촉, 국제교류, 식민지 건설에서 나타난 언어임을 알 수 있다. - 신승철, 『경계언어와 특이성 생산』, 『시대와 철학』제22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1, p.199.

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소수언어의 일종³²⁾으로,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표현은 그들을 훈육과 교육의 대상, 아이로 보는 시각을 갖게 한다.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은 언어 내에서 말더듬기이며, 변수들을 끊임없는 변이 속에 두면서 언어 자체를 정지시키고 더듬게 하는 언어적 변수들의 소수적인 사용³³⁾이다.

특특하게 자기표현을 하는 마을사람의 언어방식은 그들이 언어권력을 지니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타자이자 경계인의 정체성을 갖게 한다. 연탄장수 부모를 둔 유정은 말을 더듬고 동물과 대화를 나누는 동물의 언어를 구사한다. 아이는 소수자적 존재로서 동물과의 근방역의 존재이고, 비표상적 사유로 인해서 사물의 의미와 표상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존재인데, 피진어의 사용은 계통적으로 아이를 다시 출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아이 되기라는 변용을 통해서 소수자가 되는 것을 의미³⁴⁾한다. 전쟁 고아는 친구가 없어 새들과 대화를 하며 지낸다. “구구구구, 끼룩끼룩, 짹 짹 짹, 비오비오, 까옥까옥, 지지배배, 찌르르찌르르” 등의 의성어로 고통을 극복하려는 자신을 지켜보는 유정과 친해진 소년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육식공룡이 되고 싶어하며, 야모스 또한 사람보다는 새가 되고 싶어 한다.

노란 줄무늬 고양이와 친구로 지내는 맹랑한 녀석의 반복어와 무의미어와 같이 경계인이나 철학자처럼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고정되지 않은 비표상적 사유체계가 드러난다. 어떤 동물의 말이 가장 알아듣기 어렵냐고 소년이 묻자 유정은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사람은 타인을 복종으로 유인하거나 사찰하는 시선으로 통제 대상으로 삼고

32) 위의 논문, p.208.

33) 로널드 보그, 앞의 책, p.301.

34) 신승철, 앞의 논문, pp.204-205.

자 하는 주체의 시선³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정과 맹랑한 녀석의 대화에서도 반복이 계속되고 있다. 실연의 상처를 지닌 맹랑한 녀석의 염세적인 반복어와 상상력이 풍부한 유정의 말더듬 대화는 언어적인 관습을 혼란시키는 탈기표적인 더듬거림이자 반복적 무의미의 나열이다.

“저 아래 위그드라실이라 불러도 좋을 거대한 물푸레나무가 있어. 그곳에 가면 너에게 지혜를 건네줄 현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죽을 건데 뭐.”

“유정이 신기한 동물을 발견했대. 눈이 하나야. 이마 한가운데 박혀있대. 몸이 줄어드는 마법에 당한 키클롭스가 분명해. 보고 싶지 않니?”

“죽을 건데 뭐.”

“운동화 뒤축을 그렇게 구겨 신으면 오래 신지 못해.”

“죽을 건데 뭐.”

“이 책 좀 봐, 멋지지 않니?”

“죽을 건데 뭐.”

“젠장, 죽을 때 죽더라도 할 건 하고 죽어라.”

“죽을 건데 뭐.”³⁶⁾

마을사람들의 언어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피진어 혹은 경계언어를 구사한다. 수전증에 관절염을 앓고 허리가 굽은 술주정뱅이 열쇠장이 영감은 헛소리를 하며 대상과 상관없이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코끼리”

35) 슬라보예 지젝 외, 라강정신분석학회 역, 『사랑과 대상으로서 시선과 목소리』, 인간사랑, 2010, p.11.

36) 손홍규, 앞의 소설, p.87, p.104.

“어떤 코끼리요?”
 “분홍색 코끼리”
 “뭐하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어.”
 “어디로 가고 있어요?”
 “.....”³⁷⁾

소설의 화자인 소년은 마을사람들 대부분의 언어가 “생명이 없는 언어, 격발하기도 전에 과녁에 꽂힌 탄환과 같은 몰염치한 언어”라고 설명한다. 논리적인 권력언어를 갖지 못한 하위계급의 의사표현은 묵살되거나 전달 되지 않는다. 작가는 권력언어가 작동함으로써 유지되는 자본주의를 비판한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틀지워진 욕망의 생산과 소비를 작동하기 위해 아이들의 세계를 식민화하기 위한 시도가 교육이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졌기에,³⁸⁾ 이에 저항하는 다양한 방식의 언어를 구사한다. 아이, 동물, 비정상인, 이주자는 동일시되어 타자화되고 유아화되는데³⁹⁾ 이는 언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동물과 소통하는 대화, 더듬거림, 침묵, 반복어, 비속어 등의 다의미적 언어뿐만 아니라 몸짓, 표정, 춤 같은 비기표적 기호론에 기반하는 피진이 나타나며, 이러한 경계언어를 통해 주변부 혹은 타자라는 연대성과 동질감을 서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언어, 문화, 외모에서 나타나는 기괴하고 낯선 고향에 있지 않음, 온전치 못한 존재, 성가신 존재인 이주자, 고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자, 폭력피해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불완전한 억압에서 비롯되며 과거의 믿음과 경험

37) 위의 소설, pp.36-37, p.63, pp.88-89, pp.126-127, p.180.

38) 신승철, 앞의 논문, p.206.

39) 이미림, 『다문화성장소설연구』, 『현대소설연구』제5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p.386.

의 흔적에서 발생⁴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중인물들은 모어를 쓰지 않거나 한국어가 서툰데 말을 더듬고 동물과 교유하는 인간 이하 혹은 비인간, 동물, 아이, 비국민, 이방인으로 표상된다. 언어는 자신의 권리와 요구를 표현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으로 하위주체는 스스로 말할 수 없다. 소통이 불가능한 타자의 언어, 경계언어는 근대자본주의사회가 조장한 중심권력언어를 전복하고 해체함으로써 다름과 차이를 포용하고 인정해야한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정치적이다. 언어=권력이라는 언어사회학적 관점에서 경계인의 경계언어는 타자의 언어이자 이방인의 언어이다. 탈영토화된 언어인 동물언어, 새언어, 반복어, 피진어, 무의미어, 침묵, 욕설, 비속어, 더듬거림, 재잘거림은 특이한 낯섦과 유머, 기지, 아이러니 효과를 가져 온다. 또한 문법과 규칙에서 벗어난 언어 이전의 언어, 여명의 언어는 생성의 언어로서 자본주의, 권력, 정상, 주체, 규율, 관습 등과 같은 기존의 틀을 전복시키고 해체시킨다. 《이슬람 정육점》에서는 언어의 획일화를 지배하는 권력이나 지정된 상수들(동일성)의 법칙에서 벗어나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저항적인 역할⁴¹⁾을 하고 있다.

V. 어린아이의 시선과 유동하는 시대의 문학적 소명

작가는 자신의 분신인 고아소년과 친구 유정의 입을 통해 문학관을 피력한다. 아이-되기, 동물-되기와 같은 타자-되기라는 변형과 생성의 원리로, 소년은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고발한다. 획일화된 학교교육, 외국인

40) 데이비드 허다트, 앞의 책, pp.146-152.

41) 임환모, 『한국문학과 들뢰즈』, 『국어국문학』제158집, 국어국문학회, 2011, p.88.

혐오와 배타주의적 시선, 언어의 불완전함, 자본주의의 욕망과 이기를 비판하고, 떠돌 수밖에 없는 21세기 고아적 운명을 지닌 이주자와 자본주의로 인해 상처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고찰한다. 이러한 발화는 백인/서구/남성의 주체적 시선과 규범화되고 문법화된 권력언어로는 인식할 수 없는 타자의 시선이 타영토화된 언어로 나타난다. 타자가 됨으로써 탈주와 경계해체가 이루어지며, 반복을 통한 차이와 생성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대한 작가란 그가 표현하는 언어가 비록 모국어일지라도 항상 그 언어 속에서 이방인과의 같음을 의미⁴²⁾한다. 소설가를 꿈꾸는 고아소년은 인간 없는 세상, 사람이 부재하는 곳, 그러기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나 반드시 한번쯤은 상상해야할 공상과학소설을 쓰고 싶어한다. 고아, 이주자, 아이 같은 주변적·타자적 시각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고양시키는 요소이며 특히 어린아이는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는 존재⁴³⁾이다. 어린아이의 시각은 특권적인 식별방법이 되며, 안정된 거리를 둔 어른의 시선을 혼란시키는 분열적인 상상력을 제공하는데, 어린아이의 ‘알지 못함’은 때로는 통찰력을 발휘하는 또다른 방식의 읽⁴⁴⁾이기 때문이다.

말더듬이 소설가 김유정과 이룸이 같은 유정의 꿈은 작가가 되는 것으로 ‘수다스러운 말더듬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능력을 지닌 유정은 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아이지만 사람의 말을 가장 알아

42) 질 들뢰즈, 김현수 역, 앞의 책, p.195.

43) 니체는 정신의 세 변화를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순서로 설명하는데, 낙타는 “나는 마땅히 해야 한다” 즉 시키는 것을 하는 입장이고, 사자는 “나는 하고자 한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즐기면서 무한 긍정하는 어린아이는 가장 마지막 단계로 니체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다. - 니체, 정동호 역,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세상, 2000, p.39.

44) 그램 질로크, 노명우 역,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pp.128-129.

듣기 어려워 선생이나 부모에게 얻어터지곤 한다. 전쟁고아 또한 유정처럼 사람이 부재하는 곳 그 미래에 대해 쓰고 싶은 소망을 갖는다. 유정의 침묵과 말더듬은 언어의 부정확하고 불완전함을 경계하는 태도이다. 유정의 다음과 같은 말은 작가의 소설가적 운명과 사명을 대신한다.

“나, 난 소, 소설가가 될 거니까. 소, 소설가는 특권을 지, 지닌 사람이야. 대, 대신 그는 하, 한 가지 일을 해, 해야 돼. 사, 사람들이 증언하길 꺼, 꺼리는 걸 세상의 법, 법정에서 대, 대신 증언해야 하, 하거든. 화, 환자의 종기에 입을 대고 피, 피고름을 빨아주는 의, 의원처럼, 소, 소설가는 사람의 여, 영혼에 흐르는 피고름을 닦아줘야 해. 너, 다, 다른 사람의 가래침이나 코, 코딱지를 먹을 수 있어?”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거봐, 소, 소설가는 그걸 머, 먹는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들이군.” 나는 그렇게 대꾸했다.⁴⁵⁾

손흥규 소설에서는 글을 쓰거나 소설가가 꿈인 소년이 등장하여 작가 자신의 문학관을 피력하곤 한다. 작가란 문화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니체적 의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는 질병과 건강에 대한 문화의 기호를 읽어내는 징후 발견자인 동시에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치료사⁴⁶⁾를 일컫는다. 단순한 현실의 모방이나 재현이 아니라 타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의사이자 생성과 변혁까지를 요구하는 정치가로서의 작가적 소명과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다. 소설을 쓰고 싶거나 소설가가 되고자하는 소년과 유정의 입을 통해 작가는 우리 시대가 소망하는 문학관과 작가로서의 사명감을 말하고 있다. 위대한 작가들은 자신들의 언어 안에서 이방의 언어를 발견하며, 언어 자체를 더듬거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타자-되기의 언어적 과정을 부추긴다.⁴⁷⁾

45) 손흥규, 앞의 소설, p.187.

46) 로널드 보그, 앞의 책, p.12.

이 소설은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다문화주의, 휴머니즘을 사유하는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문체와 사회비판이라는 녹록치 않은 주제를 유머, 위트, 익살, 환상, 아이러니를 구사하여 재미있게 읽힌다. 손흥규는 모방이나 재현이 아닌, 의사/예술가/입법자인 동시에 평가자이자 창조자로서의 작가를 주창하며 “문학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위무해 줄 수 있어야 한다”⁴⁸⁾고 말한다. 구획하고 경계 짓고 선을 그어 배척하는 사회에서 탈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학의 탐색과 전형적인 문학의 틀을 벗어나는 실험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유정과 전쟁고아의 발화를 통해 작가적 소명과 문학을 설명한다는 사실이 작가의 타자-되기를 구현하는 것이기에 이 소설을 성장이나 통과의례적 차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일부분만 이해하는 것이다. 《이슬람 정육점》은 어린아이의 시선을 중시하며, 소설가인 창조자가 되려면 언제든 과거를 망각 속에 던져버리고 마치 가장 즐거운 놀이를 처음 하는 기분으로 매번 시작⁴⁹⁾하는 아이의 자세를 지향한다. 어린아이 되기는 순진무구요, 망각이자 새로운 시각, 놀이, 체험으로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⁵⁰⁾으로 창조 놀이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47) 위의 책, p.18.

48) 김명희, 「귀신의 시대는 끝났다, 그저 과잉과 결핍이 반복될 뿐...」, 『민족21』66권, 2006, p.145.

49) 고명섭, 『니체극장』, 김영사, 2012, p.393.

50) 니체, 정동호 역, 앞의 책, pp.40-41.

VI. 결론

손홍규의 《이슬람 정육점》에서는 다문화시대에 이방인이자 디아스포라인 소수자를 통해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지향적 응시가 나타나고 있다. ‘이슬람’과 ‘정육점’이라는 이질적인 것과의 결합처럼 자국민과 이주자 사이의 조화로운 공생을 위해서는 배려와 환대, 타자지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소설 속의 작중인물은 흉터와 외상, 이주와 타자성으로 고통받거나 비루하며 공동체 외부에 위치지어진다. 고아소년이나 이주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자, 말더듬이 소년, 폭력피해여성, 술주정뱅이, 도망자 등 마을사람들은 권력언어를 갖지 못한 상처 받은 자이거나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이다. 이들은 인간의 보살핌이 있는 작은 마을에 머물면서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며 혈연이 아닌 흉터를 공유한 다문화가족을 형성함으로써 서로의 상처를 치유한다. 타자의 공간, 카니발공간으로서의 다문화공간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자기 안의 타자를 발견하고 응시하며 타자의 윤리학을 실천한다. 자국민에 의해 버려진 전쟁고아를 입양하거나 한국을 위해 전쟁에 참여한 외국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우리 사회를 고발하는 이 소설은 이방인과의 연대와 절대적 환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지향적 응시가 절실함을 역설하고 있다. 기억상실, 반복강박, 타자성은 생성과 창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모티프로 고아소년은 하산의 아들도, 인간의 아이다 될 수 있으며, 한국인도 터키인도 됨으로서 고착화되고 상수화된 것을 전복하고 해체하고자 한다. 또한 작가의 분신인 고아소년과 유정을 통해 언제나 삶을 긍정하고 과거를 망각하여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어린아이의 시각과 태도로 글을 쓰는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창한다. 이 소설은 다문화소설이자 성장소설이며 소설가소설로도 읽힐 수 있어 해석의 층위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유의

들 속에서 1990년대 이후 문학의 방향성을 상실한 작가들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변혁적이고 실험적인 《이슬람 정육점》은 동화 같은 소설로 재미있게 읽히며 주제의식 또한 무게 있다는 점에서 유동하는 시대에 문제작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손홍규, 《이슬람 정육점》, 문학과지성사, 2010.

2. 논문

김경호, 『결핍과 치유: 관계성에 대한 성찰』, 『인문과학연구』제28집, 강원대 인문과학 연구소, 2011, pp.337-359.

김명희, 『귀신의 시대는 끝났다, 그저 과잉과 결핍이 반복될 뿐...』, 『민족21』제66권, 2006, pp.142-145.

김미정, 『비루함과 존엄 사이, 도약하는 반인간·비인간들』, 『봉섭이 가라사대』, 창비, 2008, pp.305-329.

김애령,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제39권, 한국현상학회, 2008, pp.175-205.

김형중, 『출노령기』, 『툭은 톱과 잤다』, 문학과지성사, 2012, pp.298-315.

서동욱, 『들뢰즈의 문학론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철학과 현상학 연구』제38집, 한국현상학회, 2008, pp.101-124.

송현호, 『<이무기 사냥꾼>에 나타난 이주 담론 연구』, 『한중인문학연구』제26권, 한중 인문학회, 2010, pp.21-42.

신승철, 『경계언어와 특이성 생산』, 『시대와 철학』제22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1, pp.197-228.

신형철, 『비인의 인간학, 신생의 윤리학』, 『사람의 신화』, 문학동네, 2005, pp.287-324.

윤대선, 『레비나스의 언어철학과 초월성』, 『철학과현상학연구』제31집, 한국현상학회, 2006, pp.113-138.

윤영옥, 『21세기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국민 개념의 재구성과 탈식민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6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pp.367-397.

이미림, 『2000년대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 『우리문학연구』제35집, 우리문학회, 2012, pp.317-346.

_____, 『다문화성장소설연구』, 『현대소설연구』제5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pp.373-401.

임환모, 『한국문학과 들뢰즈』, 『국어국문학』제158집, 국어국문학회, 2011, pp.71-100.

정기문, 『손흥규론: 기억하기, 사랑의 윤리학』, 『동남어문논집』제32집, 동남어문학회, 2011, pp.57-76.

최영진, 『들뢰즈의 생성의 개념으로 읽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환상성, 패러독스, 그리고 동물 이미지의 잠재성』, 『인문언어』제12집, 국제언어인문학회, 2010, pp.255-273.

허윤진, 『HE, STORYTELLER: 상엿소리를 기록하는 사내』, 랜덤하우스중앙, 2006, pp.369-384.

3. 단행본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고명섭, 『니체극장』, 김영사, 2012.

데이비드 허다트, 조만성 역,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엘피, 2011.

로널드 보그, 김승숙 역, 『들뢰즈와 문학』, 동문선, 2006.

마이클 하트, 김상운 외 역, 『들뢰즈 사상의 진화』, 갈무리, 2004.

미하일 바흐친, 이덕형 외역,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1.

슬라보예 지젝, 라깡정신분석학회 역, 『사랑의 대상으로서 시선과 목소리』, 인간사랑, 2010.

아르노 빌라니 외, 신지영 역, 『들뢰즈 개념어 사전』, 갈무리, 2012.

질 들뢰즈, 김현수 역, 『비평과 진단』, 인간사랑, 2000.

질 들뢰즈,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질 들뢰즈/펠리스 가타리, 이진경 역, 『카프카 : 소수적인 문학을 위하여』, 동문선, 2001.

클레어 콜브룩, 한정현 역, 『들뢰즈 이해하기』, 그린비, 2007.

프로이트, 박찬부 역,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프란프 파농, 이석호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프리드리히 니체, 정동호 역,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세상, 2000.

Abstract

A Study on Multicultural Thinking

and Gaze of Others in a Novel by Son Hong-Gyu

- With a focus on *The Islamic Butcher Shop* (Moonji Publishing, 2010) -

Lee, Mi-Rim

The Islamic Butcher Shop shows the life of a multicultural community based on multicultural thinking. Its characters are minorities characterized by scars, traumas, and migration. The main character "I" is a war orphan and placed in many different places including the orphanage, shelter, and Catholic church. He is a wounded soul with scars whose origins are unknown all over his body. Growing up in discrimination and pain, the orphan boy is adopted by a Turkish man named Hassan and moves to a deteriorated town, which is the multicultural space of others. The residents of the town include immigrants, female victims to violence, people with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ar victims, the poor, the heartbroken, the neglected, and fugitives. Living a marginal life, the residents are reborn as goddesses, saints, wound healers, war heroes, and people with superhuman power in the carnival place. The orphan boy communicates with the residents with a wound, accepts his stepfather as his father, and reconciles with the world. In the town, a multicultural community is formed as an alternative family comprised of people sharing wounds instead of blood ties. It also reports the reality in which the foreigner Hassan is subjected to discrimination and object of fear just because of his different appearance even though he is the one who adopted a child discarded by his fellow countrymen, made a family for him, and participated in the war for the nation. In the spaces of others where there are Hassan's butcher shop and Anna's restaurant, they communicate in deterritorialized languages such as stuttering, pidgin, silence, slang, repeated

words, and animal language. The author writes in the shoes of others and shows that the mission of literature is political and healing in our times through the novel. The author expresses his literary view through the war orphan dreaming of becoming an author and the stuttering novelist who has the same name, Kim Yu-jeong, as the boy, implementing becoming others like becoming children and animals. The eyes of children like aliens and foreigners are the life attitude and creative views advocated by the author. The novel proposes the directionality of novels that literature should pursue to authors that have lost a way due to the collapse of the East European bloc, raging wind of 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since the 1990s. It also promotes literature that defines no sects and boundaries, constantly moves around, and creates differences in the multicultural, debordered age. An experimental and political novel, *The Islamic Butcher Shop* conveys grand thematic consciousness that criticizes the biased, uniform, and anti-human right attitude of the society and delivers fun to the readers through humor, fairy tale-like atmosphere, fantasy, irony, and witty remarks, which focuses attention on it as an issue-making work.

Key Word : multicultural thinking, gaze of others, carnival space, becoming others, deterritorialized language, mission of literature, children

이미림

소속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주소 : (220-711)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150 강릉원주대학교 문화대 여성인력개발학과

전화번호 : 033-760-8609 / 010-3075-3526

전자우편 : milim@gwnu.ac.kr

이 논문은 2013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3년 7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8월 2일 게재 확정됨.